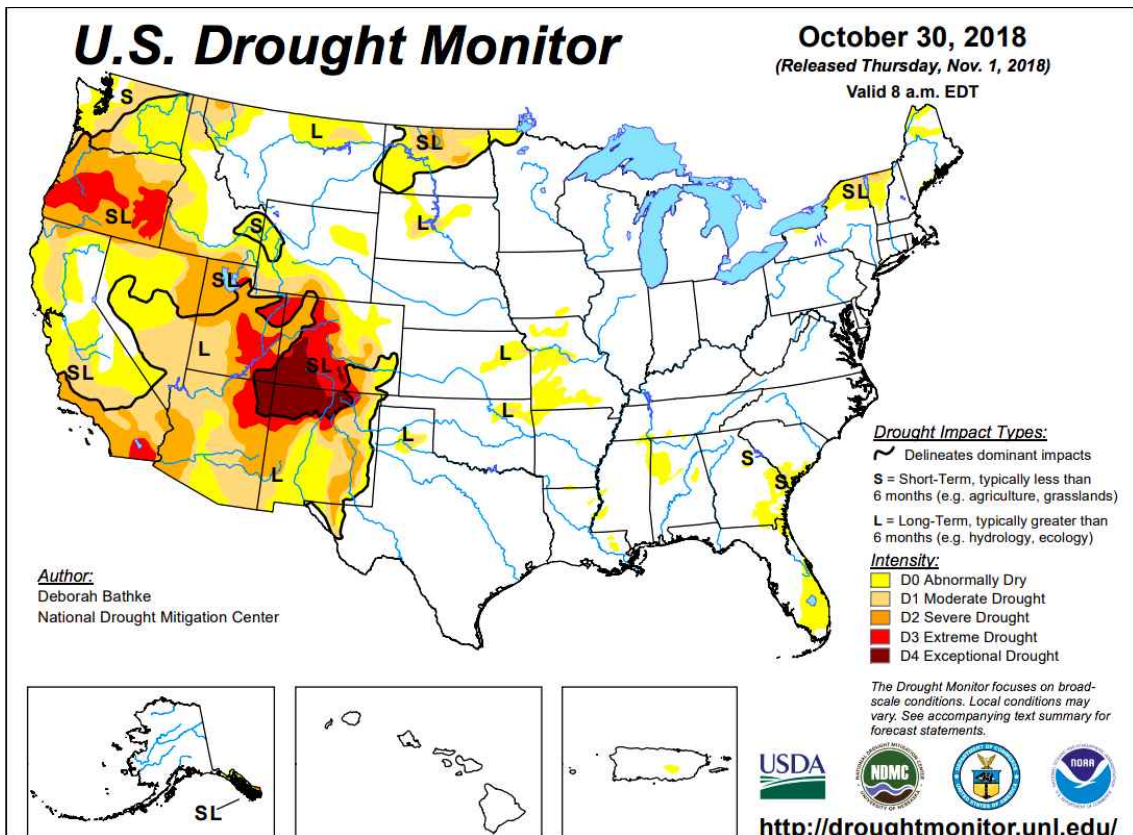


11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5, No. 45)

□ 미국 기후 현황(10/28~11/03)

걸프만 연안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오대호 일대에서는 2~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뉴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주 후반에 눈이 내리기도 했다. 한편,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 일대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이번 비는 북서부 일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반가운 단비가 되었지만,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.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에서도 눈이 조금 내렸다. 캘리포니아, 네바다, 애리조나, 유타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.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여름 작물의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.



## □ 농업 현황 요약(10/29~11/04)

서부와 미시시피 Delta,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 일대 및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았다. 반면, 오대호 주변지역 및 미시시피강 중류 일대, 남동부, 로키산맥 남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°F 정도 낮았다.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과 태평양 연안 북서부, 북동부, 로키산맥 북동부 및 텍사스 동부 지역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. 많은 지역에서 지난 한 주간 평년에 1.5 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.

## □ 세계 기후 현황(10/28~11/03)

■ 유럽: 지중해 서부 지역에서부터 이동해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10~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그 밖의 유럽 남부 및 남동부 일대에서도 100~2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동안 잉글랜드, 프랑스, 스페인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6°C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. 기온이 낮아지면서 프랑스 남동부와 알프스 일대에서는 눈이 내렸다.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에서도 5~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부터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, 이번 비로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.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가뭄 현상으로 용수 공급에 주의가 요구된다.

■ 구소련(서부): 흑해 및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 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6°C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 등의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. 북부 평원 및 양쯔강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~5°C 정도 높았다.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Yutu가 북상하면서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호주: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5~1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,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. 남동부 일대에서는 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서호주에서도 1~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~6°C 정도 높았다.

■ 아르헨티나: Cordoba, Santa Fe 중부와 남부, Buenos Aires 등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으며,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서 10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렸다.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0°C 중반까지 올랐고, 북부 내륙의 Cordoba,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°C 중반까지 올랐다.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이 69%를 기록했고, 옥수수의 파종률은 45%였다.



■ 브라질: 북동부 내륙의 Bahia 서부 및 주변 지역 등 최근 대두와 면화의 파종작업을 마친 지역 일대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북부의 Mato Grosso 및 Maranhao, Piaui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°C 중후반까지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65%, 94%를 기록했고, 밀의 수확률은 82%를 기록했다. Mato Grosso에서는 11월 2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이 89%를 기록했다.